

“수능 확대는 퇴보”

# 조희연, 교육부 비판... 공교육 혼란 우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2022 대입개편' 입장 발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입장차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고교 공교육 정상화 기여  
교육부의 자체 학종 개선시안  
미시적인 개선... 더 과감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문을 냈다. 대입제도와 초중등 교육이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공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의견문을 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떨어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28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는 의제를 정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의견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예견되는 변

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2 대입제도 개편이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고교교육 정상화 관점 ▲대학수학능력 시험 절대평가화 ▲수능 확대는 퇴보 ▲학생부종합전형 과감한 개선 등 4가지 방

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표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대입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으로 정하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전과목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상대평가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성장이 아닌 선발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구현해 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능 평가방식이 국가평가정책을 통한 학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후 자연스럽게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에 대해서는 “수

능 확대로의 퇴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자격고사’의 의미를 갖는 수능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초는 상당 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에 기인하고 이는 학종과 고교 내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지 수능·정시 확대의 과거 회귀로 귀결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의제에서 빠져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낸 학종 개선시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더욱 과감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 비교과영역 반영의 축소, 학종전형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겨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공론화위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수능과 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 수능·정시 확대도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속의·토론과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지난 30일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가 개최한 '2018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에서 김성익 총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대학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삼육대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

삼육대아트앤디자인학과(학과장 전중범)는 지난 30일 교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8 전국고교생 디자인·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육대 일원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실기대회에는 전국 고등학생 952명이 참가해 △기초 디자인 △사과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조형 등 4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심사 결과 기초디자인 부문 이경영(한영고졸) 씨에게 대상인 총장상이 수여됐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부문 이상민(교하고졸) 서가은(능곡고) △사과의 전환 부문 조은정(브니엘여고졸) 김미진(심석고) △발상과 표현 부문 김은해(대영고) 김시현(연송고) 학생이 받았으며, 이외에도 은상 9명, 동상 16명, 특선 119명, 입선 354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조명하의사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취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호사카 유지 교수(사진)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발족한 '조명하의사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어졌다.

조명하의사 연구회는 올해 조명하의사 의거 90주년을 맞아,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조명하의사 현판을 설치한 것이 계기가 돼 만들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성과예술제 전시회 개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캠퍼스타운사업단이 8월 1일~10일까지 열흘간 문화특성화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회 '성과예술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술가로 참여한 윤세열 작가의 '山水(산수)-성북', '인생지사 회전목마' 등 9명의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된다. /한용수 기자

성과예술제에는 한성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학교 인근 성곽마을의 예술자원 발굴과 지역경제 재성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인 '예술가 레지던시' 1기

## 직장인 65% “월급받고 16일이면 ‘텅장’”

(텅빈 통장)

대출이자 등 주거비 지출 많아  
다음 급여일까지 46만원 더 써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은 뒤 평균 16일이면 다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텅장 통장을 비우는 가장 큰 지출은 대출이자 납부 등 주거비였다.

31일 사람이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는 다음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써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고개'를 경험하고 있었다. 평균 소진 기간은 16일로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월급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쓰는 이유(복수응답) 1위로는 '대출이자 등 빚이 많아서'(44.4%)였다. 이어 '월세, 공과금 등 주거비 지출이 많아서'(42.6%), '가족 부양비를 책임져야 해서'(32.8%), '식비, 음주 등 외식비용이 많아서'(32.1%), '보험 등 고정비용이 높아서'(28.2%), '계획



직장인 600명 대상 설문(복수응답). /자료=사람인

없이 지출해서'(22.1%), '문화생활 등 여가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19.5%) 등이 있었다.

다음 급여일까지 월급 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46만원이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의 경우 월급 이상으로 평균 51만원을 지출했고, 미혼의 경우 평균 35만원을 월급 이상으로 사용했다. 가족부양과, 육아 등의 이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월급고개' 기간 중 지출(복수응답)은 '신용카드

사용'(72.1%)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월급고개를 겪지 않는(35%) 직장인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계획적인 소비생활'(54.3%), '소비활동 자제'(51.9%),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현금 사용'(28.6%), '술, 담배 등을 줄이거나 하지 않음'(28.6%) 등을 꼽아 최대한 소비생활을 자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현재 월급에 만족하고 있을까. 직장인 80.3%는 현재 월급이 한달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달 생활을 위해 평균 384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월 급여는 평균 270만원으로 114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었다.

한편 최근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7%가 '소득에 영향이 없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수업 명장' 다 모인다... 자유학기제 콘서트

교육부 오늘부터 3일까지 사흘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자유학기제 우수수업 등을 공유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는 자유학기교실수업 변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에게 자유학기 우수수업 사례를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 중 실시된다.

올해는 '모두의 바람, 즐거운 나눔! 자유학기 수업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자유

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 자료 집필진, 교육청 추천 수업명장 등 50명의 수업명장이 제공하는 60여 개 자유학기 우수수업이 공유된다.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약 3000여 명의 교원이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명장과 참여 교원이 수업 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다.

자유학기제 우수수업 사례로는 경기 동탄중 사회과 신수정 교사의 '질문으로 열고 통계와 게임으로 탐구하는 사회과 거꾸로 수업'이 1일 발표되고 수업 영상이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2일에는 서울 명일중 국어과 김선희 수석교사

의 '국어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토론하기, 논술하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융합수업'이, 3일에는 충남 천안 동성중 국어과 한경화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학생 배움&활동 중심 국어 수업'이 진행된다.

이밖에 '시를 꿈꾸는 교실'(한양대 정재찬 교수), '인공지능시대, 미래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는가?'(한국과학기술원 정재승 교수) 등 특강과 공감톡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자유학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부 등이 개발한 약 130종의 자료집이 책자 형태로 전시·제공된다.

박준관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비롯한 교실수업의 변화가 우리 교육혁신의 즐거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